사회조사방법론 ^{실험설계}

김현우, PhD¹

¹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

April 4, 2025



진행 순서

- 🕕 실험설계의 기초 개념
- ② 실험설계의 타당성
- ③ 사회학에서 실험하기

실험은 보통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취급된다.

-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대단히 흥미진진한 실험 연구의 결과가 있다.
- 무엇보다 실험설계(design of experiment; DoE)는 과학적 방법론 전반과 조사방법론의 주요개념과 이론을 학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토픽이 된다.
-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에서도 실험설계 관련 내용이 살짝 언급된다. 그다지 수준이 높지는 않다(Why?).
- 나는 사회과학자들에게도 실험설계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유용하다고 본다.
 오늘날 실험이 생각보다 매우 자주 쓰이기 때문이다!



고전적 실험설계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먼저 살펴보자.

- 독립변수(independent variable)와 종속변수(dependent variable)
- 사전조사(pre-test)와 사후조사(post-test)
- 실험집단(experimental group)과 통제집단(control group)



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.

- "어떤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주었고, 그 결과 이 사람들의 인종편견(racial prejudice)이 감소하였다."
- 이때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은 독립변수가 된다.
- 이것은 일종의 처리(treatment)이자, 개입(intervention)이자, 특정 자극에 대한 노출(exposure)이 된다.
- 이때 인종편견은 종속변수가 된다.
- 이것은 처리로 인해 나타난 결과(outcome)이다.



사전조사와 사후조사는 조사의 타이밍에 관한 문제이다.

- 어떤 사람은 인종 편견을 "처음부터" 덜 가지고 있을 수 있다(반대일수도 있다). 따라서 처리 전후로 "얼마나 변화했는가"를 알려면 처음에 어떤 수준으로 인종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미리 알아야 한다.
- 그러므로 "실험 전에" 종속변수를 미리 측정하고(사전조사), "실험 후에" 종속변수를 한 번 더 측정해야 한다(사후조사).
- 이 맥락에서 본다면, 사후조사에서 측정된 인종 편견 수준을 사전조사에서 측정된 인종 편견 수준로 뺀 값이 다큐멘터리의 효과 크기라고도 볼 수 있다(Why?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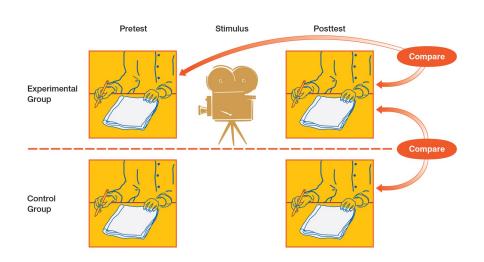
$$TE = E(Y_{post} - Y_{pre})$$



마지막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실험설계의 핵심이다!

- 오로지 실험집단에 대해서만 처리를 가한다. 통제집단은 그러한 처리를 하지 않는다.
- 때때로 하나 이상의 실험집단이 있을 수 있다. 이 경우 처리 내용을 달리한다(e.g., 다큐멘터리, 토의, 다큐멘터리+토의).
- 실험집단 내(within)에서, 사후점수와 사전점수를 비교하여 처리효과(treatment effect)의 크기를 알 수 있다.
-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(between)에서 각 점수를 비교하여 처리효과의 크기를 알 수 있다.





이렇게 보면 실험설계 방식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.

- 첫째, 피험자내 설계(within-subjects design)는 각각의 실험 참가자(subjects)가 여러 개의 처리에 노출되는 설계방식이다. 이 경우 처리효과는 피험자 "내" 반응의 차이에 따른다
- 둘째, 피험자간 설계(between-subjects design)는 각각의 실험 참가자가 하나의 처리에만 노출되는 설계방식이다. 이 경우 처리효과는 피험자 "간" 반응의 차이에 따른다.
- 셋째, 요인설계(factorial design)는 실험 참가자가 둘 이상의 처리에 대하여 그만큼 집단을 나누어 "가능한 모든 조합에서" 실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설계방식이다.



불완전한 실험설계를 살펴보면 바람직한 실험의 조건을 알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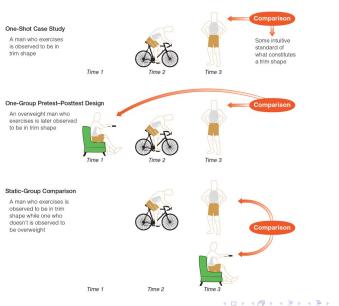
- Donald Campbell과 Julian Stanley가 1963년에 출판한 〈Experimental and Quasi-Experimental Designs for Research〉은 이 분야의 아주 유명한 고전이다.
- 세 종류의 원시실험 연구설계(pre-experimental research designs)를 살펴보자.
- 가장 먼저 단일집단 사례조사(one-group design)에서는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통제집단도 없다.
- 실무적으로 보면 "모든" 구성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다음, 정책평가를 위해 연구자를 찾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다(Why?).
- 이 설계에는 사전조사도 통제집단도 없으므로 안타깝지만 잘못 수집된 자료이다. 실험설계 이전에 연구자와 미리 상의를 해야 한다.



April 4, 2025

- 다음으로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(one-group pretest-posttest design)에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지만 통제집단이 없다.
- 통제집단이 없으므로 처리효과를 가져오는 그 원인이 처리로 인한 것이라는 확증을 얻을 수 없다(Why?).
- 마지막은 정적집단 비교(static-group comparison)에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는 없지만 통제집단은 있다.
- 이것은 충분히 괜찮은 것처럼 들리지만 사전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값(initial value)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.





실험설계는 타당해야 한다. 이 타당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.

- 타당성(validity)은 대단히 복잡한 개념이지만, 가장 단순하게 내적(internal) 타당성과 외적(external) 타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.
- 내적 타당성은 인과효과(causal effect)에 관한 것이다. 즉 실험에서 가해진 처리 (treatment)의 결과(outcome)로서 효과가 나타나야 "내적으로" 타당한 실험설계라고 할 수 있다.
- 외적 타당성은 일반화(generalization)에 관한 것이다. 즉 실험에서 얻은 발견 (finding)이 실험 참가자를 넘어 모집단 전체로 확장될 수 있어야 "외적으로" 타당한 실험설계라고 할 수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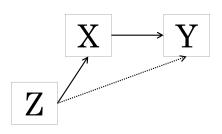
내적 타당성을 먼저 다루고 그것이 위반되는 상황을 살펴보자.

- 실험설계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한다고 하였다.
- 먼저 Ball-Rokeach, Grube, and Rokeach (1981)의 드라마 〈뿌리(Roots)〉 시청효과에 관한 연구를 읽어보자(Babbie 2021: 378-379).
- 이 사례가 설명하듯 자기선택으로 인한 왜곡(self-selection bias)은 실험설계의 내적 타당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한다.
- 실험에 참여하기로 "선택하는 것"은 실험 참가자의 몫이다. 다시 말해, "드라마를 보기로 한 것"도 그 실험 참가자의 한 몫이다.
- 만약 이 선발단계에서 이미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면(즉 드라마 시청자와 비시청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) 실험에 의한 처리효과(treatment effect)와 자기선택효과는 뒤섞이고 만다(Why?).



April 4, 2025

- 문제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규칙성에 대한 관찰은 대부분 자기선택으로 인한 왜곡에 의해 오염된다는 사실이다(Why?).
- 최종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고 하자. 최종학력은 자기선택의 결과이다. 그러므로 최종학력의 효과는 자기선택의 결과이기도 하고 학교 교육의 결과이기도 하다.
-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학력과 고소득 사이에는 상관관계(correlation)만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, 인과관계(causality)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.





- 실험설계에서는 일단 실험 참가자가 들어오면 일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눈다. 그리고 이 둘을 나눌 때는 무작위화(randomization)를 사용한다.
- 동전던지기를 해서 1/2의 확률로 실험집단에, 1/2의 확률로 통제집단에 돌린다. 그러면 $Z \to X$ 에 해당하는 자기선택으로 인한 왜곡은 마술처럼 사라지고 만다!
- 아까 예로 되돌아가, 진짜 최종학력과 고소득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려면 강제로 동전 던지기를 시켜 자기선택으로 인한 왜곡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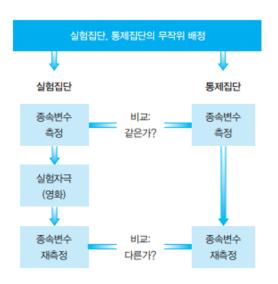


무작위화는 완벽한 실험설계의 꽃이다.

- 무작위화를 통해 마술처럼 실험설계에 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.
- 만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(random)로 나누었다면 심지어 사전조사조차 필요하지 않다. 무작위화를 통해 (사전조사 없이도) 두 집단이 이미 사전에 동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(Why?).
- 무작위하게 두 집단을 나누었다는 전제 하에서,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점수 차이는 곧 처리효과의 크기를 반영한다.

$$TE = E(Y_{treated} - Y_{control})$$







20/30

- 때때로 연구 주제상 무작위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. 가령 민권운동(civil rights movement)이 사회복지액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고 하자.
- 이런 경우 대안으로 짝맞추기(matching)를 사용할 수 있다. 즉 "처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" 나머지 요소가 최대한 비슷한 대상을 어떻게든 찾아내 실험집단과 짝짓는다.
- 나머지 조건은 비슷한데 오로지 처리 여부만이 달랐으므로 종속변수의 변화 (사회복지액 증가)는 처리(민권운동) 탓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(Why?).



- 하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히 일치하는 짝을 찾아내기란 매우 어렵다.
- 가령 흑인 비율, 주 의회(state legislature) 민주당원 비율, 경찰 인력 등 다양한 조건을 몇 개 정도 일치하는 경우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.
-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모르는 조건도 있어 그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(Why?).
- 무작위만은 못하지만, 짝맞추기는 차선으로서 나름 의미가 있긴 있다.



보통 실험설계는 외적 타당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.

- 연구자로서 교수는 수업을 듣는 대학생에게 실험 참여를 요청한다. 실제로 과거의 수많은 심리학적 발견은 미국, 백인, 남자 대학생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얻어진 것이다.
- 피험자 풀(subject pool)이 그토록 제한적인데 이들로부터 얻은 발견을 모든 사람에게 대해 일반화(generalization) 할 수 있을까?
- 설령 대학 밖을 벗어나 지하철 유리창에 실험 참여자 모집 광고를 싣는다고 해도 이 문제는 극복되지 않는다.
- (발견이 일반화될 대상인) 모든 사람이 "동등하게 실험에 참여하게 될 확률"을 갖는 것은 아니다.
- 다시 말해, 실험 참가자는 모집단을 대표(representative)하지 못한다.



솔직히 말해 사회학 분야에서 실험연구는 사실 주류는 아니다.

- 실험실적 실험연구(laboratory experiment studies)는 심리학이 주도해 왔다. 그 뒤를 한참 멀리서 따르고 있는 건 교육학과 경제학 정도이다.
- 그러나 사회학에서도 실험실 바깥에서 실험에 가까운 연구가 종종 있어왔다. Correll, Benard, and Paik (2007)의 연구에 대해 읽어보자(Babbie 2021: 374-375).
- 여러분도 20-30명 정도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여 간단한 실험을 수행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사회학적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.
- 아쉽게도 연구 윤리 문제가 까다롭기 때문에, 이 수업에서는 추천하지 않는다. 꼭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이 필요하다.

Correll, Shelley J., Stephen Benard and In Paik. 2007. "Getting a Job: Is There a Motherhood Penalty?"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2(5): 1297–1338.



실험에서 윤리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주제이다.

- 많은 윤리 이슈가 실험방법과 관련하여 대두되었음을 떠올리자(Stanley Milgram과 Philip Zimbardo).
- 취약한 실험대상자 배려(vulnerable participants), 고지된 동의(informed consent), 개인정보 보호(privacy and confidentiality)가 키워드이다. 앞글자를 따면 VIP이다.
- 이를 위한 특별한 행정적 절차가 있으며 이를 꼭 거쳐야 한다.



실험설계는 웹기반 자료수집 및 분석과 관련하여 최근 매우 주목받고 있다.

- 이제 웹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매순간 이용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매우 어렵다. 그런데 웹과 어플은 그 자체로 훌륭한 실험실이 된다.
- 사람이 웹이나 어플을 사용하는 순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임의화 (randomization)하여 나누면 즉각 실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.
- 잡마켓에서 이른바 A/B Test가 데이터 분석가의 직무수행 필요능력으로 종종 거론된다.
- 이 분야는 이른바 인간-컴퓨터 상호작용(human-computer interaction; HCI)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.



• Barack Obama는 2010년 미 대선 당시 웹 실험을 통해 선거운동 자금 6천만 달러를 추가로 모을 수 있었다.



자연실험 개념도 사회학자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 방법이다.

- 자연실험(natural experiment)은 실험실 밖에서 (즉 인간의 의도나 통제 바깥의 영역에서) 우연히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실험처럼 그 함의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다.
- 우리나라의 독특한 맥락에서는 동성학교(same-sex school)의 학업효과 측정을 자연실험할 수 있었다.
- 그 밖에도 출생 순위(birth order), 복권 당첨 등이 자연실험에 해당한다. 심지어 때로는 자연재해가 자연실험의 계기를 가져다주기도 한다.

Kirk, David S. 2009. "A Natural Experiment on Residential Change and Recidivism: Lessons from Hurricane Katrina."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(3): 484-505.

범죄우발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재범율에 영향을 미치는가?

-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미국 New Orleans에서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다.
- David Kirk (2009)는 특히 범죄우발지역에 살던 전과자들의 피난 이후 돌아올 곳이 있던 이들과 그렇지 못했던 이들을 비교하여, 범죄우발지역에 사는 것의 재범률에 대한 인과 효과를 찾아냈다.
- 즉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New Orleans의 범죄우발지역에 살던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.
 - (T) 돌아올 수 있었던 전과자들: 예전의 범죄우발지역으로 다시 돌아가 거주한 사람들 (C) 돌아올 수 없었던 전과자들: 카트리나로 인해 다른 지역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
-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, 범죄우발지역으로 다시 돌아간 전과자들의 재범률이 더 높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. 즉 주거 환경의 특성이 재범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적 결론을 제시했다.

Kirk, David S. 2009. "A Natural Experiment on Residential Change and Recidivism: Lessons from Hurricane Katrina."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(3): 484–505.